

# 2004년도 변리사시험 경쟁률 38대 1

## “총 7,617명 응시원서 제출”

**특** 허청은 2004년도 변리사시험 경쟁률이 38대 1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15일간 인터넷으로 진행된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총 7,617명이 지원하였다.

변리사시험 지원자수는 2002년 9,940명을 고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16% 감소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자가 9% 감소하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변리사 공급이 크게 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문자격사로서 변리사에 대한 수험생들의 평가에 거품이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자격사의 시장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서 1990년대 30명 선이던 변리사 선발인원을 최근 200명선으로 확대해 왔다. 금년에도 변리사 최소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정해졌다.

2차 시험 60점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되 그 숫자가 200명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순으로 200명을 선발하게 된다.

1차 시험에서는 최저 합격인원의 5배인 1,000명을 합격시킬 예정이다.

이공계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자격시험으로 자리 잡아

금년에도 지원자의 89%는 이공계 분야 전공자인 것으로 집계되어 이제 변리사시험은 대표적인 이공계 분야 전문자격시험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의 87%, 최종 합격자의 97%가 이공계 출신이었다.

한편 1,503명의 여성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여성지원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20%로 나타났다.

### 시험 경쟁률 38대 1, 지난해보다 지원자 9% 줄어

#### 금년 1차 및 2차시험 일정

금년 변리사시험 일정을 보면, 1차 시험은 3월 7일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11일, 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실시된다.

1차 시험 결과는 5월 7일, 2차 시험 결과는 12월 18일에 발표된다.

기타 시험관련 정보는 “특허청변시홈페이지”(http://pt.uway.com)에서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 동물 유전자 조작기술 관련 특허 급증

“전통적인 교배방법에 의한 동물신품종 확보의 한계성 극복”

**유**전자조작에 의해 본래의 유전형질 중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변화시킨 ‘형질전환 동물’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전통적인 교배방법에 의한 동물신품종 확보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보도된 바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광우

병에 걸리지 않는 소’ 개발은 이러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형질전환동물과 동물복제기술에 관련된 특허출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에는 관련분야의 출원이 연간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 연간 15건 이상으로 늘어나 현재까지의 총 출원건수는 약 100건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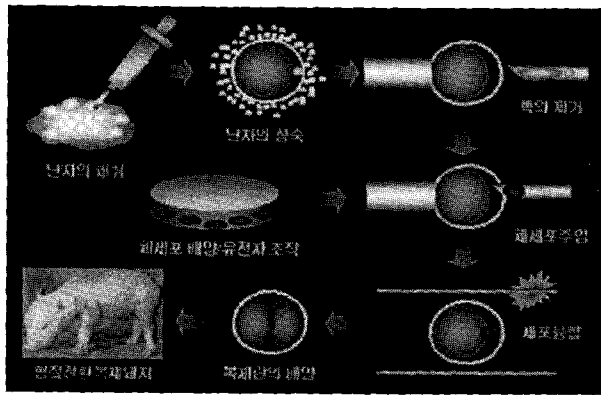
### 특허출원의 기술유형

기술유형별로는, 질병연구모델로 활용되는 실험동물, 생물 의약품 생산수단이 되는 동물 및 동물복제기술에 관한 발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 이 가운데, 유전자조작에 의해 특정질환에 민감한 동물을 제작하여 질병 연구모델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명이 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들은 난치병 치료법 연구 및 신약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형질전환동물을 살아 있는 생물 의약품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발명은 이 분야 전체출원의

21%를 차지한다. 젖, 소변 또는 혈액을 통하여 백혈구증식인자, 조혈인자, 항체 등 고가의 생물 약품을 배출시키는 소, 돼지, 흑염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세포배양방법보다 생산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부가가치도 높아 새로운 의약품

생산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물복제 및 형질전환동물 제작의 새로운 기법에 대한 특허출원은 24%를 차지하며, 이는, 주로 체세포를 이용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과정 및 복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체세포복제에 의한 형질전환동물제조과정〉

### 출원인 국적별 분포

국내발명자(48%)에 의한 출원비율이 전체 외국인 출원비율(52%)과 거의 대등한 정도를 보여, 이 분야의 국내연구가 매우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향후 전망

오늘날 생물산업은 건강 및 환경 등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에서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형질전환동물 및 복제동물의 생산기술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생물 의약품 및 안전한 장기(臟器)의 공급수단이 되고 질병의 치료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생물산업의 중심부에서 더욱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특허청